

폴란드 사무소/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12월 2 ~ 3주차)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폴란드 경제 동향

- 11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4.6%로 전망(EU)
 - 폴란드 중앙은행은 2024년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3.7%로, 2025년은 5.6%, 2026년은 3.4%로 예상함
 - 11월 초,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기준금리를 5.75%로 동결, 10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였으며, 9월에는 4.9%로 보고됨
- 10월 실업률은 3.1%이며, EU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EUROSTAT)
 - 유럽연합 통계청은 체코 2.6%와 몰타 3%에 이어 EU 27개국 중 세 번째로 낮은 실업률을 기록, EU 평균 실업률은 5.9%로, 전년도 동기 대비 EU 평균실업률은 6.1%에서 감소함
 - 폴란드 통계청(GUS) 자체 집계기준, 10월 실업률은 4.9%로, 전월 5% 대비 하락했다고 발표
- 폴란드 개발기금, 경제 성장 전망률 3% 이상 유지 예상(PFR)
 - 일부 산업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 등으로 타격을 입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
 - 소비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분야는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국가 재건 계획」(National Recovery Plan) 자금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 재건 계획 자금의 90%가 공모 진행중(기금지역정책부)
 - 자금의 약 90%가 이미 공모 절차에 들어갔으며, 보조금(grant) 할당액의 약 35%가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을 발표
 - NRP는 총 57개의 투자와 54개의 개혁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의 약 45%는 기후 목표에, 21%는 디지털 전환에 사용될 예정

* NRP : 총 598억 유로(그랜트 : 252.7억 유로, 대출 : 345.4억 유로)

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

- 피치, 2024년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률을 4%로 전망(12.9)
 - 2024년 경제 성장률을 4%로 전망하며, 흑해 무역 정상화, 정부 지출 증가, 실질 임금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꼽음
 - 2025년에는 노동력과 에너지 부족으로 성장률이 2.9%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 가능한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2025-2026년 성장 전망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전망
 - 2025년 인플레이션은 9.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임금 상승과 노동력 부족이 물가 상승 압력의 주요 원인임. 2024년 인플레이션은 6.2%로 전망됨
- 젤렌스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파리에서 회담(12.7)
 -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만남을 주선함. 두 사람은 12월 7일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행사에 맞춰 파리에서 회담을 가짐
 -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즉각적인 협상 필요성을 강조함
 - 젤렌스키는 회담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평화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단순한 서명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덧붙임
 - 러시아는 협상에 열려 있다고 재확인하며, 푸틴이 지난 6월에 이미 협상 조건을 제시했다고 발표함
- 트럼프, 우크라이나 평화 방안 3가지 검토 중, NATO 가입 포함 안 돼(12.6)
 -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3가지 주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 중 어느 것도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포함하지 않음
 - 첫 번째 방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선 동결 및 평화 협상에 대한 동의를 대가로 미국의 군사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키스 켈로그 특사에 의해 제안됨

- 두 번째 방안은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의 계획으로, 현재의 전선을 따라 비무장 지대를 설정하고 이를 강화하여 추가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것
- 세 번째 방안은 리처드 그레넬 전 정보국장이 제안한 동부 우크라이나 내 “자치 구역“을 창설하는 방안임
- 하지만 푸틴은 현재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영토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3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

○ PGE社, 두 번째 원전 위치로 Bełchatów(베우하투프) 제안(12.4)

- PGE 사장 다리우시 마제츠(Dariusz Marzec)는 폴란드 두 번째 원전 위치로 Łódź 지역의 Bełchatów을 정부에 추천함
- Bełchatów에는 PGE의 석탄 광산 및 5,096MW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폴란드 전체 전력 수요의 30% 이상을 담당, 2036년에 수명이 종료될 예정으로, 현재 부지가 전력망 및 현지 기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이상적인 위치로 평가됨

○ 정부, 제3원자력발전소 건설 가능성 모색(12.3)

- 산업부는 연말까지 원자력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최신화하여 제3원자력발전소 건설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이행할 예정
- 이 프로그램에는 첫 번째 신규원전 건설 일정(2028년 착공 예정)과 제2원전의 시공사 선정 절차(2025년 시작 예정)가 포함되어 있으며, 잠재적 파트너로 미국 Westinghouse, 프랑스 EDF, 한국 KHNP가 거론됨

* 2022년 11월, 폴란드 정부는 Pomeranian주에 첫 번째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승인했으며, 해당 사업 비용은 약 200억 달러로 추산됨

○ RWE社, 폴란드 첫 해상 풍력 350MW 프로젝트 건설 허가 취득(12.4)

- RWE는 West Pomerania 지역 Voivode로부터 350MW* 규모의 F.E.W. Baltic II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 허가를 승인받았으며, 이번 허가는 해상 풍력 터빈, 케이블 및 해상 변전소 건설을 포함함
- 본 사업은 2025년 1분기까지 나머지 건설 허가서를 취득할 계획임

* 폴란드 발트해의 Ustka 북쪽 약 50km 해상에 위치하며, Siemens Gamesa의 14 MW 터빈 25대를 설치할 예정임

○ PPL社 사장, 쇼팽 공항 확장 필요성 강조(12.8)

- 폴란드 공항(PPL) 사장, 안드르제이 일코프(Andrzej Ilków)는 쇼팽 공항이 2025년까지 2천3백만 명의 승객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며, 공항 확장은 2026년에 시작해 2029년까지 완료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일코프 사장은 공항의 여객수용용량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확장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 확장 후 공항은 연간 3천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확장 계획은 8개월간의 작업 끝에 결정되었으며, 비용은 예상보다 적게 드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공항의 슬롯 문제와 관련해,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이미 모든 슬롯이 예약된 상태임
- 확장 기간 동안 항공사들이 공항 용량 부족 문제를 겪지 않도록 다른 공항들과 협력할 계획임

○ CPK社 사장, 쇼팽 공항 확장 시급(12.4)

- 필립 체르니키 사장(Filip Czernicki)은 쇼팽 공항 확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미루었던 전임자들의 결정은 “극단적인 실수“였다고 말함
- 쇼팽 공항은 폴란드 최대의 공항으로, 올해 들어 2천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며 승객 수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함. 현재의 인프라는 연간 2천3백만 명 이상을 처리할 수 없으며, 올해는 약 2천1백만 명의 승객을 예상함
- 체르니키 사장은 “쇼팽 공항의 확장 실패는 심각한 실수였다“며, 승객 수 증가에 맞춰 시급히 확장이 필요함을 강조함. CPK 중앙 공항이 승객을 수용하기 전, 확장 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공항 확장 계획은 12월에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PPL이 확장 개념, 일정 및 비용을 공개할 계획임

○ 정부, 2026년까지 그단스크항 곡물 터미널 확장 건설 예정(12.2)

- 투스크 총리는 2026년까지 그단스크 항구에 곡물 터미널 확장 및

제반시설인 철로 및 도로 인프라 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발표, 해당 터미널은 정부의 관리하에 운영될 것으로 발표

- 다리우시 클림차크(Dariusz Klimczak) 인프라부 장관은 터미널과 함께 저장 시설이 3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장되며, 그단스크 항구에 PLN 4억(약 98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
- 이는 러-우 전쟁 후,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폴란드 유입에 대한 대응 조치로, 폴란드 내 곡물 수출 및 수입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목적

○ Langowski Logistics社, MLP Pruszków II에 5,600㎡ 임대 계약 체결(12.3)

- Langowski Logistics는 국제 컨테이너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폴란드 물류 운영 업체로, MLP Pruszków II 단지에 5,600㎡ 이상의 공간을 임대함
- 이번 계약으로 Langowski Logistics는 이 지역에서 총 13,000㎡의 물류 기반을 확보하게 됨

* MLP Pruszków II는 바르샤바 인근에 위치한 현대식 물류 단지로, 424,000㎡ 이상의 임대 가능 공간을 제공하며, 교통 연결이 잘 되어 있음

○ 폴란드-스웨덴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발트해 안보 강화(11.29)

○ 아조티 그룹(Grupa Azoty)社, 금융기관과 금융협약 연장(12.02)

- 아조티 그룹은 금융기관들과의 협약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연장함. 이 계약은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금융기관들은 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
- 협약 연장은 회사의 유동성과 공급업체 채무 이행,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도록 함

* 협약기관은 PKO Bank Polski, Bank Gospodarstwa Krajowego, ING Bank Śląski, Santander Bank Polska, Caixabank Branch in Poland, BNP Paribas Faktoring, ING Commercial Finance Polska, Pekao Faktoring, BNP Paribas Bank Polska, Santander Faktoring, Banco Santander, Frankfurt Branch, EBRD, EIB

○ 올렌(Orlen)社 주주, 前 경영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승인(12.02)

- Orlen 주주들은 전 최고경영자(CEO) 다니엘 오바이텍을 포함한 13명의 전 경영진에게 손해배상 청구 결의안을 승인함

- Orlen은 전 정부가 국영기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 회사는 전 경영진이 연료 가격 조작과 Swiss 자회사(Orlen Trading Switzerland) 손실 등으로 약 50억 즈위티(약 12.3억불)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힘
- 폴란드 국영기업의 대규모 재정 손실, 감사 결과 발표(11.28)
 - 새로운 정부가 실시한 감사 결과, 이전 정부의 부적절한 지출 및 투자가 국영기업에 큰 재정 손실을 초래함
 - 약 100건의 검찰 고발과 95명의 국영기업 이사회 멤버가 재정 관리 부실로 인해 법적 조치 대상이 됨
 - 국영기업 자산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국영기업 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유재산 감독 모범 규정」(Code of Good Practices for State Ownership Supervision)이 도입될 예정임

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

-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까지 우크라 지원금 610억불 전액 집행 예정(12.5)
 -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할당된 지원금 610억불을 바이든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모두 사용할 계획임
 - 이 지원금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포병, 장갑차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및 전차, 보병 전투 차량 등의 군사 지원을 포함함
 - 현재까지 미국은 총 1,020억불 지원을 제공했으며, 다른 동맹국들은 총 1,580억불을 추가로 지원 제공함
- 우크라이나, EU로부터 최대 350억 유로의 금융 지원 받기로(12.5)
 -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세르히 마르첸코는 EU와 최대 350억 유로의 거시금융지원(MFA, macro-financial assistance)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자금은 G7의 500억 달러 대출 계획의 일환임

- 이번 대출은 EU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할 미래 수익으로 상환될 예정이며, 모든 지원금은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재무부는 강조함
- 지원금은 거시금융 안정성, 공기업, 공공 행정, 에너지, 법치주의, 부패 척결, 방위 산업 등에 사용될 계획임

○ 우크라이나, 에너지 지원 관련 미국과 덴마크의 협력(12.5)

- 미국과 덴마크는 우크라이나에 830백만불 이상의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
-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825백만불을 지원받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 복구, 분산 발전 도입, 에너지 부문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덴마크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복구를 위해 6백만 유로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자금은 「에너지 커뮤니티」(Energy Community)가 설립한 「우크라이나 에너지 지원 기금」(Energy Support Fund for Ukraine)으로 전달됨

○ 주택건설 동향(12.5)

- 리비우 지역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3년 동안 150개의 신규 주거 단지가 건설되었으며, 이는 키이우 지역에서 시작된 70개의 신규 프로젝트보다 두 배 많은 수치임
- 키이우 지역은 수도보다는 교외 지역의 개발이 더 활발하며, 키이우 시 자체의 건설 활동은 전쟁 첫 해에 거의 80% 감소했음. 2023년에는 소폭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재성장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서부지역, 특히 리비우와 이바노-프랑키브스크 지역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바노-프랑키브스크(Ivano-Frankivsk,+56%), 리비우(Lviv,+42%), 리브네(Rivne,+41%), 우주호로드(Uzhhorod,+40%), 체르니우치(Chernivtsi, +30%)임

○ 폴란드 PKP Linia Hutnicza Szerokotorowa, 전후(戰後) 대비 투자 준비 (12.5)

- 우크라이나와 연결되는 400km 길이의 광궤선을 운영하는 회사로,

전후(戰後) 교통량 증가를 예상하며 철도 시설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음

- 2024년 10월까지 PKP LHS의 교통량은 9백만 톤을 넘었고, 연말까지 1,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 교통량의 약 43%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철광석이며, 전체 물량의 85%가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옴
- PKP LHS는 전쟁이 끝나면 교통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건축 자재의 물량이 이미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이를 대비해 PKP는 자동화 통제 센터를 두 개 건설했으며, 앞으로 두 개 더 지을 계획임. 특히 컨테이너 운송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인프라부, EU 요구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유료 도로 도입(12.3)

- 데리카치 차관은 EU의 요구로, 유료 도로 도입을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며, 유럽투자은행(EIB)과 이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유료 도로는 주로 대형 트럭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우크라이나 도로 인프라 개발에 사용될 예정임
- 한편, 67%의 우크라이나 운송 회사는 내년에 사업 확장 및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59%가 시설 현대화(59%), 신규 시설 구축(44%), 기존 시설 인수(16%)에 투자를 했음

○ 폴란드 건설업체, 르비우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설 지속하기로 합의(12.3)

- 르비우 시의 Green City 기업은 폴란드 건설업체 Control Process SA와 계약을 체결하여 르비우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설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 해당사업은 EBRD의 지원을 받아 장비 구매를 위한 70%의 자금을 제공받음
- 계약 연장 합의사항으로 2025년 6월 30일까지 건설완공, 시운전은 내년 2월내에 이루어질 예정임. 건설 재개는 12월 첫째 주로 예정됨

* 초기 프로젝트 비용은 3,500만 유로였으나 장비 가격 상승으로 인해 최종 비용은 5,000만 유로에

이르며, 연간 처리 용량은 24만 톤으로, 18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임

○ 독일, 우크라이나에 650백만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 약속(12.3)

- 12월 2일, 독일 총리 올라프 솔츠가 키이우를 방문해 연말까지 650백만 유로 규모의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 패키지에는 IRIS-T 방공 시스템, 패트리엇트 발사대, 10대의 Leopard 1A5 전차, 60대의 보병 전투 차량, M84 및 M80 장갑차가 포함됨
- 또한 6,000발의 비유도 미사일과 500발의 유도 미사일, 4,000대의 헬싱 드론, 겨울 장비 및 소형 무기, 난방 장비 등도 제공될 예정임

○ 젤렌스키 대통령, NATO 초청과 외교적 영토 반환을 대가로 전쟁 중단 검토 중(12.2)

- 젤렌스키 대통령은 점령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지역을 나토에 가입시키고, 점령된 영토는 외교적으로 반환받는 방안을 통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제안함
- 그는 나토 가입이 “푸틴의 재침을 막을 수 있는 보장” 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나토의 보장 없는 휴전은 러시아의 추가 영토 침략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함
-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Metinvest의 CEO,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위해서는 안보 보장 (Security Guarantee)이 필수적임을 강조(12.2)

- Metinvest의 CEO인 Yuriy Ryzhenkov는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협상으로 종결할 경우,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에는 확실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
- Metinvest는 마리우폴에 있는 Azovstal 및 Illich 제철소 등의 주요 시설을 전쟁 중에 잃었으며, 현금흐름의 1/3을 차지하는 Porkrovsk광산 또한 잃었으나, 여전히 우크라이나 최대의 법인 납세자 및 고용주 (43,000명)로서 경제적 기여를 이어가고 있음

□ 주요 프로젝트 동향

① 종합계획수립(마스터플랜,MP) 사업

①-1 키이우 지역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1단계)

< 사업 개요 >

- (용역사) 유신, 삼정회계법인, 한국교통연구원,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무소
- (용역비) 1,122백만원
- (용역기간) 2023.12.29.~2024.11.22.(330일)
- (주요내용) 키이우 지역 교통중심의 공간개발 및 재건계획 수립,
- (추진현황) '23.12월 타당성조사 직접지원 사업 선정
'24. 2월 우크라이나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24. 9월 국내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시행
'24.10월 초청연수 개최
'25.02월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국내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시행(9.27), 우크라이나 공무원 방한초청 연수 실시(10.28~11.2), 향후 자문회의('25.1)를 걸쳐 국내외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①-2 키이우 지역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2단계)

< 사업 개요 >

- (용역사) 한국교통연구원, 유신, 톰스
- (용역비) 960백만원
- (용역기간) 2023.5.27.~2024.11.22.(180일)
- (주요내용) 키이우주 교통모델링 구축, 스마트모빌리티 전략 수립
- (추진현황) '24. 3월 타당성조사 직접지원 사업 선정
'24. 7월 우크라이나 현지 교통현황 조사
'24.10월 중간보고회, 초청연수 개최
'25.02월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국내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시행(10.23), 우크라이나 공무원 방한초청 연수실시(10.28~11.2), 향후 자문회의('25.1)를 걸쳐 국내외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② 6대 선도 프로젝트(참고)

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

① 석화(PDH/PP)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Grupa Azoty, Grupa Lotos, 현대엔지니어링, KIND
- (사 업 비) 1,840백만불
- (사업내용) 폴리프로필렌 연간 43만톤 생산
- (추진현황) '19.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20. 10월 금융종결
'24. 12월 PAC(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 발급

- (주요동향) 발주처 준공검사 완료, 대주단 성능 시험 준비 중
- 준공검사 기간 중 생산된 제품 판매 진행 중

참고

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담당기관	추진현황 및 계획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 우선사업 선정 및 pre-FS 등 * '23.12~'24.11 (수행 : 유신 컨소시엄) • (2단계)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 '24.5~'24.11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 	KIND L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ND 등 키이우 현지 착수보고 완료('24.2월) • 키이우주정부, 인프라부 등 공정회의(주1회) - 자료요청 및 기본 재건 방향 등 협의 • 초청연수 실시('24.10월)
우만 스마트 시 마스터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 * '23.9~'24.4(수행 : 제일Eng, 수자원공사 등) 	KI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키이우, 4월4주) •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
보리스필 공 현대화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 공항 확장·개발 (활주로 등)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한국 공항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화(공항시스템 개선) : '24년 외교부 ODA 선정, '24.10월, PMC 용역발주 • FS : 국토부 지원 사업 추진 중
부차시 하수처리 시설 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환경산업 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25년 上) * 환경부 F/S 지원사업
댐 재건 및 현대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호우카 댐,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수자원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외교부 ODA 사업으로 '이르핀강 댐 재건 MP 수립' 및 '키슬리치강 유역보전 MP수립' 용역 발주 예정('24년 下)
철도 노선 고속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 키이우~폴 바르샤바 구간(919km) 중 우크라 구간(580km)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50→150km/h) 추진 중 	철도공단 (* 운영 등 코레일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KOICA ODA 사업으로 기획조사 후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24년 下)